2015년
6월 19일 금요일

상생뉴스

NO.395

한국철도시설공단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Rail Network실현

/ 발행인 강영일 / 편집인 신철수 / 기사문의 042)607-3085 / http://www.kr.or.kr /

경원선 월계(철도)역사, 이용객 편의시설 추가 설치 중!

- 7월까지 편의시설 설치완료.. 올해 말 북부역사까지 완공 예정 -

수도권본부(본부장 김영하)는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중 지난 2014년 12월 우선 개통해 사용 중인 월계역사(남부)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추가설치 공사를 올해 7월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 동안 지연되었던 북부역사 부출입구의 사유지 협의매수가 올해 5월말 완료됨에 따라, 6월부터 남은 공사를 추진해 올해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월계역사 신축공사는 기존의 낙후된 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지난 14년 12월 북부역사의 부출입구를 제외하고 우선 개통해 사용 중이다.

본부 관계자는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남은 북부역사 부출입구 건설도 올해 말까지 완공해 고품질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북부역사 조감도]

[남부역사 편의시설 추진중]

[CEO동정] 인도철도부 관계자 면담

- 철도공단, 인도 철도 현대화 사업 참여방안 논의 -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6월 9일(화) 공단 본사에서 인도철도부 사업조정국장인 Navin Kumar(나빈 '쿠마르'), 계획국장 Sandeep Srivastava(산디프 '스리바스타바')와 면담시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인도철도부가 주력하는 델리~칸푸르, 델리~아메다바드 등 기존선 고속화 사업 및 델리역 및 뉴델리역 등 철도역사 현대화 사업에 공단의 참여방안을 논의하였다.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정부 이후 도시철도(메트로), 기존선 고속화 및 현대화, 철도역사 현대화, 화물전용철도노선 신설 등 철도인프라 사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며, 지난 올해 5월 한-인도 정상회담 시 100억불 규모 기간산업(인프라) 금융지원 협정 체결로 철도분야에서 한국 및 인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토부 산하기관의 유일한 철도건설기관으로 2005년부터 성공적인 중국철도시장 진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인도철도시장을 제2의 중국시장으로 선정하여 인도 메트로, 화물철도사업, 기존선 고속화 사업 등 다양한 인도철도사업 진출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인도철도시장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금년 1월 인도에 지사를 설립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는 해외건설협회 시장개척자금을 활용하여 델리~뭄바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철도공단은 철도사업 수주를 위해 인도 철도부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양국의 세미나, 초청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공단, 메르스 관련 철도이용자 등 불편사항 주말 현장 점검!

이번 주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경영진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도건설 현장 근로자와 최근 개통 및 이용자 밀집 철도역사의 국민불편 사항 등은 없는지 현장을 방문하여 일제히 점검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6월 13일 09시 본사 수석처장 이상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사장, 부이사장, 본부장급이 이번 주말(13~14일)동안 호남고속철도 광주송정역, 수도권고속철도 평택현장 및 동탄역사 건설현장 등 8개소를 집중 점검하여, 메르스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사항과 근로자 애로사항 및 건설현장 방역대책 이행상황 등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 이번주말 현장 점검계획 : 별첨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혈액부족을 해소하는데 적극 동참하기로 하고, 6월 12일 헌혈 참여운동을 펼쳐 51명의 임직원이 헌혈에 자진 참여했다고 밝혔다.

[별 첨] 메르스사태 관련 휴일 경영진 현장점검 계획

점검일자	점검현장	점검자
6월 13일(토)	호남고속철도 광주송정역	이사장, 기획재무본부장, 전철전력처장
	2호선 삼성역(이용자 밀집지역)	건설본부장, 광역민자철도처장
	1호선 신도림역(이용자 밀집지역)	부이사장, 시설본부장, 시설계획처장
	수도권고속철도 평택인근 8공구 현장	기술본부장, 건설계획처장
6월 14일(일)	수도권고속철도 동탄역	이사장, 기술본부장
	김포 도시철도 건설사업 현장	기획재무본부장
	경부고속 대구도심 현장	건설본부장, 건설계획처장
	철도 방음벽 현장	시설본부장, 시설계획처장

철도시설공단,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3개 부문 본선 진출

- 자율적 지식혁신활동 우수사례 전파 -

기획재무본부(본부장 박인서)는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15.5.28~29)에 5개 팀이 참가하여 3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올해 41회를 맞이한 이번 경진대회(주관 : 한국표준협회)에 자유형식, 상생협력, 환경안전품질, CoP부문에 참가하여 원가절감, 품질·생산성 향상방안, 고객만족 개선사항 등 품질혁신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였다.

본선에 진출한 3개팀의 우수사례를 보면, 자유형식부문의 "철도터널 콘크리트라이닝 두께 최적화를 통한 예산절감"이라는 주제로 철도터널 콘크리트라이닝의 경제 설계기준 마련으로 자원절약과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650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한 사례, 상생협력 부문에서는 "희망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한 협력사 해외 수주율 증대"라는 주제로 동반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해외사업 포럼 및 웹 홍보물 발송 등 공단의 희망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 동반진출 역량 향상, 환경품질안전 부문에서는 "철도건설현장 안전관리방법 개선으로 안관관리목표지수 감소"라는 주제로 KR 재난알리미 구축, 신규근로자 안전체험교육 의무 시행, 품질환경 안전지수제 평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현장 관리로 무재해 달성 등 안전한 철도건설현장의 이미지를 제고 등의 내용이다.

강영일 이사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우리 공단 임직원들의 자율적 지식혁신 사례가 직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오늘의 뜻 깊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이번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의 우수한 성과를 계기로 자율적 지식혁신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국민으로부터 일 잘하는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철도공단, '규제 사각지대' 본격 해소에 나선다.

- 전문가를 통해 상시모니터링.. 필요 없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 -

기획재무본부(본부장 박인서)은 일회적 규제개혁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운 규제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전문적 내규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6월말부터 '주요내규 지속적 개선관리 체계'를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이 도입한 내규관리체계는 공단이 발굴하여 개선중인 철도시설점용허가 규정 등 29개 중점관리 내규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규제해소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고, '숨은 규제·부패·불공정 관행·안전 등' 사회적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단에 적용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관련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생산 및 적용하는 시스템이다.

철도공단은 공단 내규에 대한 규제심사 강화를 위해, 법무처 내에 전문 내규심사팀을 구성하여, 상호검증을 통한 규정 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는 내·외부 법률전문가와 공조체계를 이루어 심사하도록해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본부 관계자는 "금번 내규관리체계 도입으로 숨은규제 및 부패요소 등을 보다 정밀하게 발견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철도공단-철도기술연구원, 400km/h급 고속철도 핵심기술 개발

- 환경소음, 선로구조물 및 전차선로 등 고속철도 인프라 기술 확보 -

KR연구원(원장 이동렬)은 국토부 지원사업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김기환)과 고속철도의 인프라 핵심기술인 '환경소음 저감 장치', '선로구조물 모니터링시스템', '전차선로 핵심부품 7종'에 대한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실용화를 위한 설계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호남고속철도 익산~정읍 구간에 총길이 28km의 '400km/h급 시험선(테스트베드)'을 구축했으며, 금년 3월까지 현장 적용을 위한 성능검증 시험을 완료했다.

주요 기술개발 내용을 보면 환경소음 분야에서는 고속열차가 400km/h급의 속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3dB이상 낮추기 위해 개발한 '방음벽 상단 장치'와 '슬래브 도상용 흡음블럭'을 개발해 호남고속철도 시험선에 각 400m씩 부설해 시험한 결과

- 기존의 방음벽보다 3dB 이상의 소음 저감효과 및 방음벽 높이별 공사비를 약 8~18% 줄일 수 있었고,
- 슬래브 도상용 흡음블럭은 같은 성능의 독일 등 해외제품에 비해 20% 생산비가 저렴해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로구조물 분야에서는 시험선 내 11개소에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철도노반 침하기준 등 400km/h급 설계기준1) 8건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신설될 고속철도 및 기존선 개량사업에 핵심기술로 적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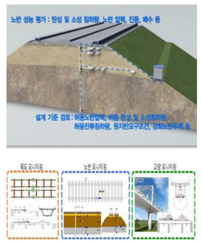
1) 핵심 설계기준 8건 : 교량 구조적 설계변위, 노반 침하기준, 연약지반 판정기준, 표준동적하중 충격계수, 교량단부 사용성, 콘크리트궤도 기준, 콘크리트궤도 구성품 기준, 미기압파 기준

아울러, 전차선로 분야에서는 400km/h급 속도에서 안정적으로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면서, 유지보수가 편리하도록 구조가 단순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전차선 등 핵심부품2) 7종을 개발하였으며, 공단은 철도사업에 적용 시 단선 km당 약 1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전차선 핵심부품 7종 : 전차선, 가동브래킷, 곡선당김금구, 인류애자, 단말금구, 균압드로퍼, 장력조정장치

강영일 이사장은 "철도기술 선진화 및 해외 고속철도시장 진출을 위해 앞으로도 고속철도 기술 국산화와 철도신기술 개발연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환경소음 저감장치 (방음벽상단장치 및 흡음블럭)



선로구조물 모니터링

전차선 핵심부품 7종

철도시설공단, 장항선 개량2단계 철도사업 '석면 공동조사단' 본격 운영

- 설계 및 공사시 방지대책 반영 및 상시모니터링 시행 -

건설본부(본부장 김계웅)은 6월 11일(목) 대전 본사 회의실에서 장항선 개량2단계 철도건설사업의 광천지역(신성~주포간) 자연발생석면 통과구간의 석면비산방지를 위한 '석면 공동조사단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천지역은 자연발생석면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철도공사로 인한 석면비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석면전문가, NGO, 지역주민 대표,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석면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였다.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방음벽 추가 설치 공사 추진

- KTX 운행에 따른 소음민원 해소 및 생활불편 최소화 기대 -

'2018년 평창 올림픽 수송지원'을 위한 철도건설 본격화!

- 철도공단, 원주~강릉 철도건설 구간 궤도공사 7월부터 본격 추진 -

기술본부(본부장 김상태)는 7월부터 수도권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원주~강릉 철도건설구간 내에 궤도공사(연장 121km)가 추진될 계획으로, '2018년 평창 올림픽 수송지원'을 위한 철도건설사업이 본격화 된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궤도공사에 소요되는 레일, 분기기, 침목, 레일체결장치 등 주요 자재가 생산 착수에 들어가, 금년 7월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주요 궤도자재 : 레일2만280개, 분기기113틀, 침목31만876개, 레일체결장치62만1,752조 등

특히, 원주~강릉간 철도건설 사업의 궤도공사는 일부 기존선과 연결되는 노선만 자갈 궤도(연장 19km)를 부설하고, 대부분은 승차감과 유지보수성이 좋은 콘크리트 궤도(연장 102km)로 시공하게 된다.

* 레일과 침목 주변을 자갈로 채운 궤도는 '자갈궤도', 콘크리트를 채워 고정한 궤도는 '콘크리트 궤도'로 통칭

본부 관계자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및 강원지역 개발촉진을 위해, 2017년 말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중앙선 도담~영천간 단선 → 148.1km 복선전철화
[도담~안동(72.2km) 복선, 안동~영천(75.9km) 단선]
○ 총사업비 : 3조 6,474억원 (2010~2018년)
○ 사업효과 : 중앙선 도담~영천 속도향상 및 경북내륙 개발
- 운행시간 단축 : 청량리~영천 4시간56분 ⇒ 1시간48분(△3시간08분)
- 선로용량 증대 : 도담~안동 33→137회(복선), 안동~영천 33→40회(단선)

※ 공구별 공사개요

○ 도담~영천 제3공구
- 공사구간 : 경북 영주시 풍기~영주시 영주동 (L=10.5km)
- 공 사 비 : 1,624억원 (48개월)
- 시 공 사 : 대림산업(주)외 1개사

○ 도담~영천 제4공구
- 공사구간 : 경북 영주시 영주동~영주시 승문리 (L=10.5km)
- 공 사 비 : 1,354억원 (48개월)
- 시 공 사 : 현대산업개발(주)외 2개사

○ 도담~영천 제5공구
- 공사구간 : 경북 안동시 북후면~서후면 (L=10.5km)
- 공 사 비 : 1,154억원 (48개월)
- 시 공 사 : 현대산업개발(주)외 2개사

철도공단, 파라과이 철도운영사와 '시험궤도 건설' 양해각서 체결

- 공단과 협력해 '파라과이 경전철 시험궤도(5.5km)' 건설 추진 -

철도공단, 호남선·전라선 등 5개 노선에 재해예방시설공사 추진

- 약65억 원 사업비를 투입해 올해 말까지 공사완료 계획 -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약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호남선, 전라선 등 5개 노선 29개소에 재해예방 시설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재해예방시설(29개소) : 호남선(12), 전라선(3), 경전선(11), 광주선(2), 여천선(1)

이번에 시행하는 공사중 옹벽설치는 호남선 김제~신태인 구간 등 13개소, 배수로는 전라선 서도~산성 구간 등 17개소, 비탈면 보호공은 호남선 신태인~정읍 구간 등 5개소로서, 이달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특히, 상습 침수 및 비탈면 유실우려가 있는 3개소*는 우기전인 7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 붙임 : 재해예방 개소별 주요 공사 세부내용 1부.

본부 관계자는 "금년에 재해예방 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열차의 안전운행 확보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선로에 인접된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등 지역주민의 농경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붙임] 재해예방 개소별 주요공사 세부내용

연번	선 별	구 간	위 치	주 요 공 종	단위	수량
1	호남선	김제~신태인	114km200(상우)	산마루측구(TYPE-1)	m	45
				깍기부도수로	m	9
				게비온옹벽 설치(H=2.0m)	m	42
2	호남선	김제~신태인	115km400(상우)	산마루측구(TYPE-1)	m	64
				깍기부도수로	m	16
				게비온옹벽 설치(H=2.0m)	m	44
3	호남선	신태인~정읍	123km070(하좌)	비탈면보호공(녹생토T=5cm)	㎡	89
				U형개거(600×600)	m	26
				집수정설치(1.0×1.0)	EA	1
				깍기부도수로	m	12
4	호남선	신태인~정읍	124km200(하좌)	게비온옹벽 설치(H=2.0m)	m	10
				비탈면보호공(녹생토T=5cm)	㎡	208
5	호남선	신태인~정읍	125km000(하좌)	비탈면보호공(녹생토T=5cm)	㎡	203
				산마루측구(TYPE-1)	m	39
				게비온옹벽 설치(H=2.0m)	m	19
6	호남선	익산역구내	역 외곽	개거덮개설치	m	100
7	호남선	백양사~장성	150km800(상우)	U형개거(600×600)	m	73
				U형개거(1000×1000)	m	40
				U형개거(2000×1500)	m	86
				게비온옹벽 설치(H=2.0~4.0m)	m	87
				흙막이 설치(H300×300×10×15)	m	128
				전기지장물이설	식	1
8	호남선	임곡~하남	175km900 상,하선(좌우)	U형개거(600×600)	m	21
				집수정설치(1.0×1.0)	EA	1
9	호남선	임곡~하남	원임곡육교하부 (하좌)	U형개거(600×600)	m	17
				U형개거(800×500)	m	48
				U형개거(1000×1000)	m	100
10	호남선	광주송정~노안	189km612－189km923(하좌)	중력식옹벽(H=2.0m)	m	308
11	호남선	나주~다시	203km458(교량)	교량배수시설 설치공사(상행)	EA	10
				교량배수시설 설치공사(하행)	EA	7
12	호남선	일로~임성리	243km000(ㅅ상우)	게비온옹벽 설치(H=2.0m)	m	10
13	전라선	서도~산성 (우선 시공)	70km200(하좌)	U형개거(600×600)	m	10
				U형개거(800×800)	m	211
				종배수관(D=800mm)	m	13
				집수정설치(1.0×1.0)	EA	1
14	전라선	압록~구례 (우선 시공)	110km000(상우)	흙막이 설치(H300×300×10×15)	m	96
				비탈면보호공(녹생토T=7cm)	㎡	397
				산마루측구(TYPE-1)	m	80
				J형측구(500×500)	m	97
15	전라선	괴목~개운 (우선 시공)	134km000(하좌)	종배수관(D=800mm)	m	222
				집수정설치(1.2×1.2)	EA	8
16	경전선	순천~원창	183km810~184km280 (단좌,우)	게비온 옹벽	m	720
				L형 옹벽	m	72
				공사용 가도	식	1
				가시설 설치	식	1
17	경전선	순천~원창	190km040~190km176 (단좌,우)	석축 옹벽	m	160
				U형 수로	m	263
18	경전선	원창~벌교	194km200~194km500 (단좌)	J형 수로	m	300
				공사용 가도(B=4.0m)	m	333
19	경전선	조성~예당	214km700 (대곡천교)	사석채움	㎥	445
				스톤매트리스	㎡	143
20	경전선	예당~득량	222km100 (오봉천교)	사석채움	㎥	949
				스톤매트리스	㎡	459
				공사용 가도	m	101
21	경전선	보성~명봉	239km973 (단좌)	U형개거(0.6×0.6)	m	82
				U형개거(0.8×0.8)	m	24
				집수정(1.2×1.2)	EA	1
22	경전선	명봉~이양	246km650 (단우)	게비온 옹벽	m	77
				U형개거(0.6×0.6)	m	77
				흙막이 설치	m	77
				공사용 가도(B=4.0m)	m	42
23	경전선	능주~만수	260km050 (단좌,우)	U형개거(0.6×0.6)	m	43
				수로바닥 정지	㎡	300
24	경전선	이양~능주	264km400(단좌)	U형개거(0.5×0.5)	m	147
25	경전선	화순~남평	277km822~277km968 (단좌,우)	게비온 옹벽	m	304
				공사용 가도	식	1
				가시설 설치	식	1
26	경전선	남평~효천	287km880 (단우)	U형개거(0.6×0.6)	m	191
				U형개거(0.6×0.6)	m	340
				집수정(1.2×1.2)	EA	7
27	광주선	극락강~광주	7km640~8km011 (단우)	중력식 옹벽	m	371
				엄지말뚝	본	185
28	광주선	극락강~광주	8km064~8km360 (단우)	중력식 옹벽	m	237
				엄지말뚝	본	115
29	여천선	적량~칠비	13km590~13km780 (단우)	격자틀+앵커공	공	289
				비탈수로	m	123
				산마루측구	m	168

중앙선 도담~영천 철도건설 영주시구간 본격 공사 추진

- 경북내륙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발전을 위한 기폭제 역할 기대 -

철도시설공단 강영일 이사장, 인천공항 연결철도 활주로 하부 통과 터널 현장 점검

- 쉴드TBM 및 TRcM 비개착 구간 집중 점검 및 안전시공 당부 -

(공항철도 노선도)

(쉴드TBM 현장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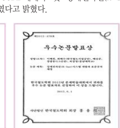
(TRcM 현장 점검)

시설장비사무소 '농번기 일손 돕기' 봉사활동 실시

KR연구원, 업무경험을 대외에 표방하다

- '15년 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

[우수논문발표상 ①]



[우수논문발표상 ②]

충청본부 KR봉사단 가뭄극복 농작물 물주기 봉사활동 펼쳐

호남본부, 철도기관 공동 청렴캠페인

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임실호국원서 봉사활동 가져

- 호국보훈의 달 앞두고 참배 및 묘역 환경정화 -

자매결연 마을에서 모내기 봉사활동

조손가정 돕기 위한 일일바자회 개최

- 수익금 전액 조손가정 지원 -

호남선·전라선 등 5개 노선에 재해예방시설공사 추진

- 약65억 원 사업비를 투입해 올해 말까지 공사완료 계획 -

호남본부, 재난대응 CPX훈련 시행

주요기사(2015. 6. 1~17)